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송 영 / 찬 양 대
※영 광 송 / 1장
※성시교독 / 36.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288장
대표기도 / (1부) 김춘자 권사 (2부) 김승규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고린도전서 15:9~10
찬 양 / (2부) 시온찬양대
말 씀 /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 전종남 목사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찬 송 / 301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전종남 목사

■ 오후 3시 30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321장, 325장 기 도 / 전숙희 권사
성경봉독 / 로마서 16:3~5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말 씀 / “복음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 전종남 목사
(Priscilla and Aquila : The Fellow Workers of the Gospel)

■ 저녁 7시 30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정인종 목사

찬 송 / 370장, 393장 성경봉독 / 마태복음 18:1~14
말 씀 / “천국에서 큰 자” / 정인종 목사

■ 주일~금 새벽 5시

시편 강해 / 전종남 목사

■ 저녁 8시 40분

인도 / 심창보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예배 위원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9월	1부	2부
박영미 전도사	윤성태 장로	정해순 권사	안내	김신영	유병용 유강순 황하연
			헌금	김춘자	최승태 김영덕B 김정순 이영희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 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일조	김명순 김복례 김성태(김득복) 김승규(차정근) 김은립 김춘예 노순결 라제팔(전복희) 문미경 예마본 유경순 유남순 윤성태(강현주) 윤진태(이기숙) 이상혁(송미숙) 최산기(김숙자) 최영종(전숙희) 홍종덕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김명순 김복례 김성태(김득복) 김순천(연윤희) 김영화 김호열(김도형) 라제팔(전복희) 문미경 오진솔 유경순 유남순 유병용(황하연) 유진원(유예원) 윤성태(강현주) 윤진태(이기숙) 윤태오(김현아) 이상혁(송미숙) 이옥미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차정근 최산기(김숙자) 홍우표 홍종덕 무명 *자녀소원: 김성학(류윤영)		
교육헌금	김복례 김성학(류윤영) 김영덕B 김춘자 김형문(신승희) 문미경 박주해 유경순 유남순 윤태오 이상혁(송미숙) 홍종덕		
구역헌금	유초 중고	구제헌금	문미경
선교헌금	김복례 문상필(2건) 유경순		

성경인물강해 - 주일 오후예배

제50과.복음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롬16:3~5)

담임 전 종 남 목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초대교회의 귀한 부부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며 교회를 섬겼다. 그들은 가정과 삶을 주님께 드렸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운 평신도 사역자들이었다.

1.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배경

1)이름의 뜻:
①아굴라 (남편) - _____ - 본도(Pontus) 출신의 유대인.
②브리스길라 (아내) - _____ (‘브리스가’의 애칭).

2)직업: (_____) 만드는 자(tentmaker) (행18:3).

3)사도 바울과의 만남 (행18:1~4)
①로마에 거주하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추방될 때, 고린도로 이주(행18:2)했다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남.
②이후, 에베소, 로마 등지에서 바울의 동역하며 복음을 증거함.

2.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특징

1) 사도 바울의 (_____) (롬16:3)
①사도 바울은 그들을 “(_____)”이라고 부르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부부라고 소개함.
②여러 교회가 그들의 수고로 은혜를 입음.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_____)할 때, 더욱 아름답게 세워진다.

2)가정으로 교회를 섬긴 사람들 (롬16:5, 고전16:19)
①자기 집을 (_____)로 내어놓음.
②가정을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니라 (_____)로 삼음.

3) (_____)를 바로 세운 사람들 (행18:24-26)
①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침.
②“하나님의 (_____)를 더 정확히 풀어 설명”하여 교회를 진리로 세움.
➤진정한 동역자는 열심 뿐 아니라, (_____)에 기초한 사역을 한다.

4) (_____)을 걸고 헌신한 일꾼 (롬16:4)
①바울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_____)까지도 내놓았나니”라고 증언함.
②자기 유익보다 (_____)을 우선시한 충성된 부부.
➤주님의 일꾼은 언제나 목숨까지 걸고 복음을 증거 한다.

3.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결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긴 모범적인 동역자들이었다. 그들의 삶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_____)과 (_____)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다. 우리도 말씀과 사랑으로, 헌신과 동역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